

진학교사들과 함께하는 2014 대입 성공 프로젝트

⑤ 수시 지원 전략

6월 모평 성적·내신 기준 목표대학 결정

영어 유형 선택 올 입시 최고 변수 될 듯

학과특성에 맞는 특기 있으면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를

대학 입시의 출발점은 6월 모의평가 결과 분석에 있다. 6월 모평 결과가 나오면 평소보다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시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 가능 대학의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6월 모평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쉽지 않으므로 목표 대학은 6월 모평 성적과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은 6월 모평과 달리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반 수생 등 모평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험생도 대거 응시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단순 기대는 금물이다.

■ 6월 모평 분석법

최고등수	최저등수
① 3번시험 제일 잘 본 시험 전교등수	② 3번시험중 제일 못 본 시험 전교등수
③	

◇ 6월 모평 분석 방법 =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모의평가를 3차례 봤다. 3차례의 시험의 학교 등수를 이용해 6월 모평 실력을 체크해야 한다. <표>의 ①은 아주 잘 본 경우 ②는 3차례 시험 중 최고등수에 가까우면 잘 본 경우이고, 최저등수에 가까우면 못 본 경우 ③은 아주 못 본 경우다.

6월 모평의 단순 결과도 중요하지만 잘 본 경우와 못 본 경우를 나름대로 원인 분석해 실제 수능에서 최선의 경우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학생부도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에 서 많은 대학들은 학생부를 주요 전형으로 활용한다. 내신이 우수하거나, 특히 지원 관련학과의 내신이나 내신의 변화 추이가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 중심전형에 응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 맞춤형 전략을 짜라 = 자신의 장·단점을 표로 만들면 보다 확연해진다. 표를 지난해 입시 결과에 대입해 어느 전형에 지원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2014 입시 Q&A

Q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방법과 모집정원은 어떻게나요?

A : 농어촌특별전형은 대학에 따라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과 대학별고사를 반영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시모집은 학생부성적·대학별고사·수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영어의 유형 선택은 올해 입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아야 한다.

6월 모평 결과의 중요성은 4등급 이하 학생들의 수능 응시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의 유형 선택은 올해 입시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알아야 한다.

◇ 유리한 수시 전형을 찾아라 =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대학별 입시요강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수험생들은 전형요소별 장·단점을 분석해 자신에게 맞

※ 2014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입시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입시 Q&A' 접수 e-메일 edu@kwangju.co.kr

진학지도의 어려운 점은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이어도 올해 더 좋은 학생이 응시하면 떨어지고, 또 반대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입시 설명회에 출품을 팔면 큰 도움이 된다. 설명회에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 수시 6회 제한 전략적 접근 필요= 지난해 대학 입시부터 수시지원율 6회로 제한했다. 또 수시 합격자는 추가 합격자라 할지라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력과 가능성은 점검해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4년제 대학이 6회 지원 제한 대상은 아니다. 산업대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한국과학기술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제외된다. 물론 전문대학도 지원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수시와 정시 동시에 대비해야= 수시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약 66%를 선발한다. 서울 소재 상위권대학은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더 높다. 수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수험생들은 수시에 대비해 지원전략을 짜되 정시모집(수능준비)의 대비도 계획에 대해서는 안된다. 수능은 수시의 최저등급뿐만 아니라 정시 준비의 핵심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수시·정시 어느 하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민기자 한철민·송덕고 교사·한돌대학입시전형연구회장>



폴리텍 광주캠퍼스 '기술 봉사'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 이종태) '베이비부마 건축인테리어시공과정'에 재학중인 교육생과 교직원 20여명이 최근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봉사를 나섰다. 봉사단은 광주시 광산구에 자리한 시민법원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찾아 천정 마감공사, 벽체 및 길레받이 공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쾌적한 숙소 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캠퍼스는 지난 5월 만45세부터 60세 실업자 및 전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축인테리어시공국비지원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교수·전문가 260명 학습프로그램 개발 머리 맞댄다

27~28일 전남대서 '대학교육센터협 하게 워크숍'

전국 대학의 교수와 교육전문가들이 전남 대에 모여 더 나은 교수법과 학습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선다.

전남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0개 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속 센터장과 실무자 260여명이 참석하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회장 김성수 신라대 교수) 11회 하계 워크숍'을 전남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염민호)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은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 역량 신장'을 주제로 진행

되며, 참여자들이 워크숍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꾀할 예정이다.

워크숍 첫째날인 27일에는 'CTL(교수학습센터)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각 지역별 대표 실무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조직을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실무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토론 중심 수업, 협업 능력 향상, 글쓰기 능력 함양, 이러닝 인프라 관리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시간도 갖는다.

둘째날인 28일에는 'CTL 실무 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의 노력'을 주제로 지역을 대표하는 30여개 대학의 센터장과 실무자들이 그동안의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전남대 염민호 센터장(교육학과 교수)은 "170개 대학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번 워크숍은 몇 달 전부터 참가신청이 쇄도했다"며 "그만큼 의미있는 자리라 대학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물론 참가자 개인의 역량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과학대, 헬기정비·전투부사관과 개설

육군과 학군제휴 협약체결

전남과학대학교와 육군이 최근 육군 인사 사령부 대회의식에서 특수학과 개설을 위한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은 전남과학대 조성수 총장과 육군 인사사령관 이재수 중장을 비롯해 대학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대학과 육군은 앞으로 상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군 항공기술 및 전투기술 분야 교류발전은 물론 우수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데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조성수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제 대학은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등 육군 전분야의 기술 및 전문부사관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명실상부 국방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되고, 또 '전투부사관과'는 보병·포병·기갑 등 전투기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특수학과는 지난 해 전남과학대가 육군으로부터

강도높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금번 학군제휴협약과 함께 개설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두 학과는 협약사항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운영, 군부대 입소 현장실습, 군장학생 및 부사관 선발 등에서 육군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성수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이제 대학은 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등 육군 전분야의 기술 및 전문부사관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명실상부 국방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전국 오카리나 콩쿠르

29일 호심관 소강당서

광주대학교 제2회 전국 오카리나콩쿠르가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광주대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그동안 광주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학과장 김정아)는 전국 오카리나콩쿠르와 오카리나교수법 세미나 개최, 오카리나 7종주 양상을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해 초등학교와 학원에서 배우는 대중적인 악기로만 알려진 오카리나가 전문 클래식 연주악기로도 손색이 없음을 알리는데 힘썼다.

지금까지 오카리나콩쿠르는 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했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정규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오카리나콩쿠르를 주최함으로써 오카리나연주의 저변확대와 함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큰 뜻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삼희 공인증개사

※ 모든 부동산 급매매

- 급매처분상담
- 법인소유물건
- 지분소유물건
- 미준공건물
- 경매증인물건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부동산 말소와 동시에 일괄매입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구)그랜드호텔 3층

(062) 234-1199 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신한공인증개사

신축 원룸 매매 전문

★북구 전대 상대·농대 1동, 신축 4층, 룸14평/주택있음
월수익 500만, 매가 5억 9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동, 신축 4층, 룸 16평 (주택40평)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4천만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북구 전대 정문 1동, 신축 4층, 룸 21개 (주택전환)
월수익 750만, 매가 8억 8천만 (엘리베이터, 벽돌시공, 대리석시공)

★서구 쌍촌동 운천역 2동, 신축 3층, 룸 8개(주택있음)
월수익 280만, 매가 5억 2천(보2천, 용1억 2천)

★서구 쌍촌동 신축 4층, 월·투룸 14개 (주택있음) 매가 6억 9천만
★북구 삼각동 신축 4층, 월·투룸 11개 (주택있음) 코너·최고 위치 월수익 330만 (보 2500만, 용 1억 2천) 매가 5억 5천만

☆상가 일대 1층, 수원지구 대방 5차 후문 59㎡ (보3천, 월10만) 모든 업종 가능
☆상가 일대 3층, 수원지구 모아빌기 APT 150㎡ (보 1천, 월 90만) 즉시입주, 시비없음

☆상가 일대 1층, 수원지구 신현운행 뒤 300㎡대 모아빌기 APT 후문 59㎡ 매가 3억 6천, 일대중 (보 3천, 월 150만)
☆상가 매매 1층, 수원지구 신현운행 뒤 300㎡대 모아빌기 APT 후문 3층 280㎡ 매가 3억 2천 (보 2천, 월 200만, 용 2억 7천만)

☆상가매매 1층 4칸: 수원지구 대방 1층 APT정은 대지 304㎡ 매가 6억 3천 (보2천만, 월 360만, 용 2억 5천만)
☆상가매매 1층, 수원지구 대성베르힐 대지 304㎡ 매가 7억 (보 1억 3천만, 용 4억)

독서실 급 입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빌기 APT 일 2층, 총 91석
신축,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 5천만, 월 250만, 시비있음)

062) 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전자)

저렴한 고급별장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케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
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자재 및 내부
공기 자동제어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난동 2층순환도로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5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전원주택지, 공장, 창고부지 등
나주시 송촌동 통신대 인근 2층선도로 절 차연
녹지 전 16,200㎡ 매가 9억 8천만원 접근성편
리, 투자적합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 광주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600㎡ 매매가/억원(기구, 전자,
자동차, 이웃도어 등) 전시판매장 최적

011-642-7777

임대·급매매

웨딩홀
상설뷔페
임대 2,824㎡
(854평)

주차 500대

보2억 / 월1,500만

매매가15억

돌잔치전문점